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

유철규



《10년 후, 한국》공병호 지음 | 해냄 | 230쪽 | 값 10,000원

저자 공병호는 드물게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과는데’ 있어 고객을 선정하고 그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전문가다운 태도를 잘 유지한다. 여기서 ‘판다’는 표현은 저자가 자랑스러워하는 표현이므로 다른 뜻은 없다.

저자가 엄격하게 고려해서 선정한 고객도 아니고, 저자의 평소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서평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한 권의 책으로 한 사람의 다기한 사고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마련이고, 더구나 그가 하나의 마케팅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드러내지 않는 다양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저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서평을 쓰기에 마음이 편해지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이 책에 전망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이 책이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비난이 없었으면 한다” (5, 6쪽)고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즉, 평소의 활동과 무관하게 이 책을 읽어 달라는 주문이므로, 이 책 한 권만으로 서평을 쓰더라도 큰 누는 아닐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 한 이론사나 사상의 역사에 체계적인 근거를 두고 있거나 현실의 과학적인 분석과도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엔 한결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주력하는 경영관련 실용서가 아니고, 드물게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것이다. 담담하게 세상은 앞으로 이

렇게 흘러갈 것이니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억해 둘 것을 요청하는 글쓰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알려진 평소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책은 4개의 큰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문제점을 16개 소절로 나누었다. 밝지 않은 주력산업의 미래, 기업의 해외 이전 러시, 기업이 정신의 실종과 젊은이들까지도 위협을 회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공동체의 분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격 확대와 그 틈을 정략적으로 파고들어 분배 중시의 평등사상을 유포하는 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득세, 자조가 아닌 나뉘먹기가 지배하는 시대정신, 목적을 벗어나 월권을 일삼는 노동조합의 득세, 비현실적인 공교육 강화를 되풀이하는 교육의 실패, 정부의 확장과 재정적자, 명분에 집착하여 실용주의를 버리는 대미외교와 반미정서, 세계화 시대에 이미 없어졌거나 없어질 민족에 집착하는 반시대적 민족주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의 한국 탈출과 그것을 조장하는 정치세력, 불가항력인 세계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경쟁자 중국의 약진, 깊어가는 세대갈등이 그것들이다.

“진보진영의 득세(137쪽)”와 “가진 자의 몸사림”(136쪽) “저성장파 고실업”(136쪽)으로 요약되는 10년 후 한국을 전망하는 것이 두 번째 장의 내용이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은 세 번째 장이 맡았다. 핵심은 경제원리보다 정치원리의 지배가 심화되어 가면서 우리사회가 사회주의화되어 가고 시장경제 원리가 위협받는다라는 점이다. 특히 하게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적 세력과 자기 철학이 부족하고 감수성으로 무장된 채

꼼꼼히 헤아릴 줄 모르는 젊은 세대의 부상이 자주 지적된다. 공동체와 기업과 개인이 준 비해야 할 내용을 다루는 네 번째 장이 뒤에 배치되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꿔 살아남는 일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기억된다.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많은 부분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병렬시킴으로써 문맥 속에서 경제사학의 연구성과와는 상반된 인과관계를 독자에게 연상시키는 기법이 흥미롭다. “영국이 제일 침체됐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정책이 화려하게 실험되던 때였다”(53쪽)라는 문장은 침체와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나열해 놓은 것뿐이지만 책의 해당 부분에 들어가면 복지정책이 침체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복지제도를 기안한 집권 보수세력 내에 침체전망과 위기감이 ‘먼저’ 있었다.

둘째, 세대간 갈등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책에서 10년 후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는 이 부분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과 이를 본능적으로 지지하면서 사회사상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꼼꼼히 챙길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132쪽) 젊은 세대의 등장이 향후 10년 우리사회를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책 광고에 따르면 변명을 위해 “변화”할 것을 항상 강조하는 저자가 일반적으로 변화의 주역이라고 인정되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 사회의 침체 전망과 결부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반면, 월급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여본 경험(180쪽)을 가진 자, 지금보다 훨씬 척박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오면서 자립과 자존을 체득한(41쪽) 세대의 사상이 변명과 연결된다. 저자 스스로 “인간은 본래 재산을 갖게 되면 과격해지지 않는다”(43쪽), 즉 보수화된다고 했으니 의문은 커진다.

셋째, “기업의 임직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조직을 설계하도록”(206쪽) 해야 할 정도로 고객의 수요를 중시하는 태도가 존중할 만하다. 그런데 책에서도 썼듯이 믿을 만한 설문조사 결과 “빈곤이 사회제도 탓이라고 답한 경우는 2004년 53퍼센트”(177쪽)에 달한다. 이렇듯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잠재 소비자(즉 국민)의 선호를 기업에게 무시하라고 권하는 셈이기에 이상해 보인다. 다만 이런 집필상의 상충은 미리 설정된 고객을 중시하는 전문가적 감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1940년대 경제학자 슈페터의 기록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직후 서구가 겪은 위기의 본질은 전쟁 책임으로 인해 사회전반에서 대기업과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자본가’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었다. 이 위기감 속에서 서구 자유주의(사회주의가 아니다)는 복지제도를 기안하고 정책이념으로 승인한다. 서구와 달리 전쟁이 아닌 외환위기로 인해 위축된 한국의 보수는 과연 한국사회의 책임있는 일익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탈출하고 말 것인지 궁금하다. ☞

● 이 글을 쓴 유철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제도론, 기술경제학, 한국경제론, 금융구조조정, 민영화, 경제발전과 사회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로 성공회 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원) 원장,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연대의 정책위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